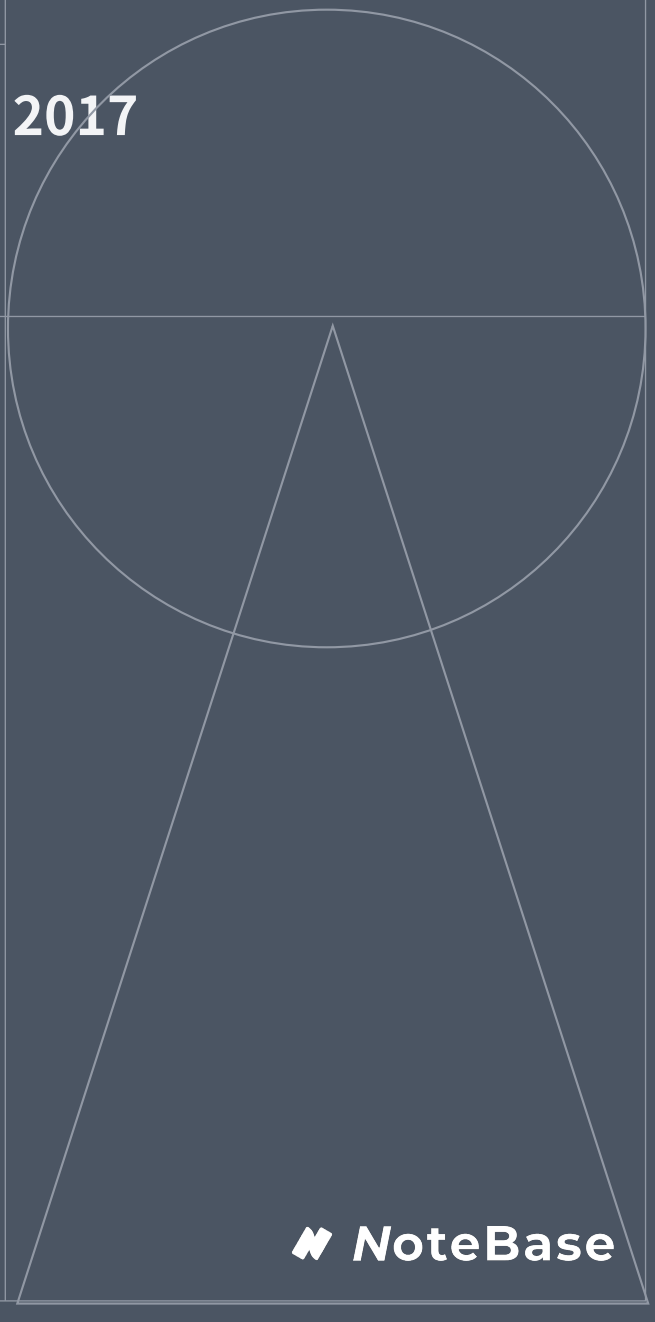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7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7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거북아, 거북아'는 상대를 불러 주의를 끄는 **환기**이다. '내놓지 않으면'은 앞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뒤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조건**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환기: '龜何龜何'는 '거북아, 거북아'라는 뜻이다. 상대를 거듭 부르며 **주의를 끌어** 뒤에 이어질 요구를 향하게 한다.

요구: '首其現也'는 '머리를 내어라'라는 뜻이다. 앞에서 부른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조건: '若不現也'는 '만약 내놓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다. 앞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며, 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음 구절에서 밝힌다.

위협: '燔灼而喫也'는 '구워서 먹으리라'라는 뜻이다.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는 앞의 조건에 이어 **해를 가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요구를 따르도록 압박한다.

NoteBase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자는 '슬픔도 퍼다 버린다'고 직접 말하며, 저무는 강의 모습에 노동으로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겹쳐 보고 있다. 강가의 풍경에는 화자의 **슬픔과 고단한 삶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므로,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일이 끝나 저물어'와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에서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저녁 강변에서 삽을 씻는 화자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삽은 화자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도구이다.

② O: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는 삽을 씻으며 **삶의 슬픔까지 털어 내려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므로, 화자는 여전히 가난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이다. 슬픔을 버리는 표현이 가난한 현실의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삽자루'는 화자가 생계를 이어 온 노동을 드러내며, 여기에 '한 생애'를 맡겼다는 표현은 **노동에 의지해 살아온 삶 전체**를 압축한다. 이어지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는 저무는 저녁 풍경을 자신의 생애와 연결하여 고단하게 흘러온 삶을 돌아보게 한다.

④ X: 화자는 '슬픔'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저문다고 하여 강가의 저녁 풍경에 자신의 삶을 겹쳐 놓는다. 또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서 가난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드러난다.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는 **자신의 슬픔과 삶에 대한 인식을 담아** 풍경을 바라본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모수는 자신을 주머니 속의 송곳에 빗대어, 기회를 얻으면 뛰어난 재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낭중지추(囊中之錐)**와 연결된다.

공통 해설

낭중지추(囊中之錐)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이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뾰족한 끝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그 재능이 저절로 드러남**을 비유한다.

밑줄에서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이라는 말은 그 기회를 얻으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충분히 보여 주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밑줄의 주머니와 송곳 비유에 대응하는 사자 성어는 낭중지추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어린애처럼'은 **백화의 몸이 가볍다**는 뜻으로 쓰였다. 옥자의 생각이 깊지 않다는 뜻이 아니며, 영달이가 옥자를 미숙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백화는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진 뒤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한다. 따라서 **고랑에 빠진 일**이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발이라도 삐었는지'라고 서술했으므로 발을 삐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② O: 영달이는 등에 업힌 백화가 가볍다고 느끼고,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다가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린다. **백화의 쇠약한 몸을 느끼는 경험**이 옥자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 것이다.

③ X: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에서 어린애에 빗댄 대상은 **백화의 몸무게**이다. 이는 옥자의 정신적 미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화끈해졌다는 서술은 있지만, 옥자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는 근거는 없다.

④ O: 백화는 처음에 싫다며 영달이를 뿌리쳤지만, 업힌 뒤에는 무겁지 않은지 묻고 어깨가 넓다고 말한다. 이후에는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업힌 뒤에는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계와 자동차를 '고치다'는 모두 **고장 난 물건을 손질하여 제 기능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두 문장에서는 '수리하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

공통 해설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고장으로 잃은 기능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도 자동차의 고장 난 부분을 손질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이 기준에 들어맞는다.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는 것은 부엌의 구조나 방식을 바꾸는 일이고,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는 것은 법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다. 이들은 **기존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고장 난 물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제시문의 의미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지문에서는 아이들이 매우 짓궂게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나타낸다.

공통 해설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시망스럽게 놀다'는 단순히 생기 있고 힘차게 노는 것이 아니라, **짓궂게 장난치며 놀다**라는 의미이다. 어수선하여 질서가 없다는 뜻이나 태도·행동이 가볍다는 뜻과도 구별된다.

지문의 '여간 ~지 않다'는 그 정도가 보통을 넘는다는 표현이다.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는 아이들이 짓궂게 놀지 않았다는 부정이 아니라, **무척 짓궂게 놀았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강기침'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고유어 접두사이다. '매우 센' 또는 '호된'을 뜻하는 한자어 접두사 '강(强)-'과 구별된다.

공통 해설

접두사 '강-'은 형태가 같아도 어원과 뜻이 다르다. 한자 '强'에서 온 '강-'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한다. '강염기'에서는 염기의 세기가 강함을, '강타자'에서는 타격이 강함을 나타낸다.
'강행군'에서도 무리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행군이라는 뜻을 더하므로 같은 한자어 접두사가 쓰였다.

'강기침'은 마른기침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강-'은 기침의 세기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한다. 따라서 '강기침'의 '강-'은 한자 '强'에서 온 말이 아닌 고유어 접두사이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수가 물에 젖어 부피가 커졌다는 뜻의 '불은'은 '붇-'에 '-은'이 붙으면서 ㄷ이 ㄹ로 바뀐 활용형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본형 '불다'는 **'붇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를 강판에 문질러 잘게 만드는 행위는 '갈다'로 표현한다. '갈-'에 어미 '-니'가 붙으면 **ㄴ 앞에서 어간 끝 ㄹ이 탈락**하여 '가니'가 된다. 이는 규칙 활용이며, 기본형은 '갈다'이다.

② X: 국수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것을 뜻하는 동사는 **'붇다'**이다. 어간 '붇-'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이 붙으면 ㄷ이 ㄹ로 바뀌어 '불은'이 된다. 따라서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붇다'가 기본형이다. 반면 '바람이 불다'의 '불다'는 '불-'에 어미 '-ㄴ'이 붙을 때 ㄹ이 탈락하여 '분'이 된다.

③ O: 이 문장의 '이르다'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라고 타이르는 뜻이다. '이르-'에 '-었-'이 붙으면 ㅡ가 탈락하고 앞 음절에 ㄹ이 덧붙어 '일렀-'이 된다. 여기에 '-다'가 붙은 것이 '일렀다'이며,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④ O: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는 것은 '들르다'이다. '들르-'에 '-었-'이 붙으면 **ㅡ가 탈락**하여 '들렀-'이 되고, 여기에 '-다'가 붙어 '들렀다'가 된다. '일렀다'와 달리 앞 음절에 ㄹ이 새로 덧붙지 않으므로 르 불규칙 활용이 아닌 규칙 활용이다.

기본형이 잘못 제시된 것은 ②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푸줏간은 심부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시되지만, 특정 시대나 계절 등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어머니가 고기를 적게 주면 항의하라고 하자, '나'는 돈을 내밀자마자 '애라고 조금 주세요?'라고 말한다. 비계를 빼 달라는 당부도 '고기로 달래요.'라는 말로 전달하려 한다. 당부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시킨 말을 따르려는 모습**에서 주의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O: 어머니는 심부름을 보낼 때마다 고기를 적게 주면 항의하고 비계 대신 살로 달라고 하도록 구체적으로 일러 준다. 이는 **아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원하는 고기를 사 오도록 꼼꼼하게 당부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X: '일주일에 한 번쯤'은 심부름의 빈도를 나타낼 뿐, 특정 시대·계절·시각 등 시간적 배경의 특성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푸줏간이라는 장소는 제시되지만, 그 공간이 사건 전개나 인물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심부름하는 아이의 말과 이에 대한 어른의 반응**이다.

④ O: 중국인은 처음에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뚱한 얼굴로 바라보지만, '고기로 달래요.'라는 말을 듣고 '꾸룩꾸룩' 웃는다. 이어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라고 농담한다. 웃음과 장난스러운 응수에서 **아이의 엉뚱한 말을 재미있어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NoteBase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필자는 생각의 범위가 말보다 넓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마지막 문단의 결론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에서 생각은 넓고 큰 것이며, 말은 생각의 일부분을 담는 작은 그릇이라고 설명한다. 생각은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도 근거로 제시하므로,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은 필자의 견해이다.

② O: 첫 문단에서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한다고 설명한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③ O: 첫 문단에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고 밝힌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불가분의 관계란 **생각의 표현과 전달에서 말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말과 생각의 범위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마지막 문단에서 생각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을 전달하려면 말을 통해야 한다'**로 고쳐야 필자의 견해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주처럼'은 물결에 젖어 지친 나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화자는 나비의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바다에서 좌절한 나비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청(靑)무우밭'은 나비가 내려앉아도 될 만한 친숙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실제 '바다'는 어린 날개를 물결에 젖게 하고 나비를 지치게 하는 공간이다. 두 공간은 푸른빛이라는 외관이 비슷하지만, 나비에게 **안식의 공간과 시련의 공간**이라는 대립적 의미를 지닌다.

② O: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라는 구절은 나비가 바다의 깊이와 위험성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바다를 '청(靑)무우밭'으로 여기고 내려간 행동에서도 **바다의 실체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다. 바다가 무섭지 않았던 것은 그 위험을 정확히 알고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다.

③ X: 나비는 바다로 직접 내려갔다가 날개가 물결에 젖어 돌아오므로, 현실을 외면하며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공주처럼'은 낯선 환경에 부딪혀 지친 나비의 연약함을 부각하는 비유이다. '어린 날개', '서글픈', '시리다' 등의 표현을 통해 화자는 나비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기보다 **좌절한 나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④ O: '삼월(三月)달 바다'는 봄인데도 꽃이 피지 않는 차갑고 삭막한 공간으로 제시된다. '새파란 초생달' 역시 푸른 색채와 '시리다'라는 감각 표현이 결합하여 차가운 느낌을 준다. 두 이미지는 모두 **차가움과 쓸쓸함**을 드러내며 나비의 서글픈 처지를 부각한다.

NoteBase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금광 브로커는 황금에 대한 사행심이 퍼진 세태를 보여 주며, **예찬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목적 없이 거리를 떠도는 구보의 자기 성찰이 담겨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개찰구 앞에는 구보가 금광 브로커라고 여기는 사내들이 서 있고, 대합실 안팎에도 그런 인물들이 보인다. 개찰구를 중심으로 한 공간은 **황금을 좇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세태**를 드러내는 배경이다.

② X: ㉡의 금광 브로커는 황금을 좇는 당대의 사행심을 보여 주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바라보며 구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므로, 서술자가 이들의 적극성을 예찬한다고 볼 수 없다.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목적 없이 거리를 나온 자신과 비교한 **제한적인 인정과 자기 성찰**이다. 금광 브로커는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황금에 대한 욕망에 휩쓸린 세태를 드러내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③ O: ㉢의 '황금광 시대'는 사람들이 황금에 사로잡혀 졸부가 되거나 몰락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무거운 한숨'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구보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문인들조차 금광 열풍에 끼어 있다는 서술도 **사행심이 널리 퍼진 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④ O: ㉣의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은 '고도의 금광열'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직접 제시된다. 특히 광산에 가서 황금의 매력을 보고 싶었다는 생각 뒤에 '그러나', '오히려'를 배치하여, **광산보다 광무과 열람실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금광 열풍**을 부각한다.

NoteBase

문 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4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에서 청룡을 다시 찾겠다고 말하는 인물은 **선관**이다. 이는 **인간 세상의 풍진 속에서 청룡과 다시 만날 일**을 예고하며, 남악산 신령의 천상 복귀를 암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은 백발 신령들이 내려와 정성껏 차린 제물을 받아들이는 장면이다. 자식을 얻으려는 기도에 신령들이 응답한 것이며, 이어지는 '귀자가 없을쏘냐'라는 말과 연결되어 **귀한 아들의 탄생**을 예고한다.

② O: ㉡ 앞에는 '한 꿈을 얻으니'가, 뒤에는 선관이 부인 품에 달려들자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은 **부인이 꾼 꿈속의 상황**이다. 이후 부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므로 이 꿈은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태몽이다.

③ O: 선관은 백옥루 잔치에서 익성과 싸운 뒤 상제에게 죄를 얻어 인간 세상으로 내쳐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 **익성과의 대전**은 선관이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는 계기이다.

④ X: ㉣의 말을 하는 인물은 남악산 신령이 아니라 **청룡을 타고 온 선관**이며, '너'는 그가 구름 사이로 놓아 보낸 청룡을 가리킨다. 남악산 신령들은 선관에게 부인의 집으로 가도록 알려 준 존재이다. '풍진'은 여기서 인간 세상의 어지럽고 고달픈 일을 뜻하므로, ㉣은 선관이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 청룡을 다시 찾을 것임을 예고한다. 남악산 신령이 청룡을 타고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풀이에는 근거가 없다.

NoteBase

문 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① ㉠: 說明, ㉡: 描寫, ㉢: 敍事, ㉣: 論證
② ㉠: 設明, ㉡: 描寫, ㉢: 敍事, ㉣: 論症
③ ㉠: 說明, ㉡: 猫鯊, ㉢: 徐事, ㉣: 論症
④ ㉠: 說明, ㉡: 猫鯊, ㉢: 徐事, ㉣: 論證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설명'의 '설'은 **說(말씀 설)**이고, '논증'의 '증'은 **證(증거 증)**이다. 소리가 같더라도 단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써야 한다.

대응 관계 해설

㉠ 설명 — 說明: 어떤 내용이나 이치를 알기 쉽게 풀어 밝히는 것이다. 說은 '말씀 설', 明은 '밝을 명'이다. ②의 設은 '베풀 설'이므로, 設明을 **說明**으로 고쳐야 한다.

㉡ 묘사 — 描寫: 대상의 모습이나 상황을 그림 그리듯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描는 '그릴 묘', 寫는 '베낄 사'이다. ③·④의 猫鯊는 소리가 같아도 묘사의 한자 표기가 아니므로 **描寫**로 고쳐야 한다.

㉢ 서사 — 敍事: 사건이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다. 敍는 '펼 서', 事는 '일 사'이다. ③·④의 徐는 '천천히 할 서'이므로, 徐事를 **敍事**로 고쳐야 한다.

㉣ 논증 — 論證: 근거를 들어 주장이 옳음을 밝히는 것이다. 論은 '논할 론', 證은 '증거 증'이다. ②·③의 症은 '증세 증'이므로, '증'을 **證**으로 고쳐야 한다.

㉠ 說明, ㉡ 描寫, ㉢ 敍事, ㉣ 論證의 대응을 모두 바르게 제시한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ㅡ'가 탈락**한다. '잠그-'에 '-았-'과 '-다'가 붙으면 '잠갔다'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병이나 상처가 회복된다는 뜻으로는 '낫다'를 쓰므로 **'나았다'**로 고친다. '낫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받침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용언으로, '낫- + -았- + -다'는 '나았다'가 된다. '낳았다'는 아이나 새끼를 낳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의 '낳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② X: '넉넉하지'를 줄이면 **'넉넉지'**가 된다. '하' 앞의 받침 소리가 [ㄱ]인 이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들므로 '넉넉치'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넉넉지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로 고친다.

③ O: 기본형은 '잠그다'이다. 어간 '잠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끝모음 'ㅡ'가 탈락하고, 그 앞 음절 '잠'의 모음이 'ㅏ'이므로 **'-아' 계열 어미**가 결합한다. 이에 따라 '잠그- + -았- + -다'는 '잠갔다'가 된다.

④ X: 옷가지를 서로 연결한다는 뜻의 기본형은 '잇다'이므로 **'이어서'**로 고친다. '잇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받침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잇-'에 '-어서'가 붙으면 '이어서'가 되며, '이여서'로 적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② 

③ 

④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ㅸ'은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쓴 **순경음 비읍**이다. 훈민정음의 원래 28자에 포함된 자모가 아니라, 자모를 **연서하여 만든 글자**이다.

공통 해설

훈민정음의 28자 체계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로 이루어진다. 초성은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ㆆ, ㅎ, ㅇ, ㄹ, ㅿ'이고, 중성은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이다. 따라서 'ㆆ'(여린히읗)과 'ㅿ'(반시옷)은 초성 17자에, 'ㅠ'는 중성 11자에 속한다.

'ㅸ'은 위쪽의 'ㅂ'과 아래쪽의 'ㅇ'을 결합한 순경음 비읍이다. 이처럼 글자를 위아래로 이어 쓰는 방식을 **연서**라고 한다. 훈민정음에서 사용한 글자이지만, 원래 제시한 28개의 자모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밤중'은 깊은 밤을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조사 '에'도 앞말에 붙여 '한밤중에'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밤중'은 깊은 밤을 뜻하는 **한 단어인 명사**이다. '중'을 따로 띄지 않으며, 조사 '에'도 명사에 붙이므로 '한밤중에'로 쓴다.

② X: '일을 잘한다'는 사실에 '성격도 좋다'는 사실을 더하는 **연결 어미 '-(으)ㄹ뿐더러'**가 쓰였다. 여기서 '뿐'은 별개의 의존 명사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이므로 '잘할 뿐더러'를 '잘할뿐더러'로 고친다.

③ X: 도착한 뒤 두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내므로, '만'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앞말 '시간'과 띄고 조사 '에'는 '만'에 붙여, '시간만에'를 '시간 만에'로 고친다.

④ X: 경기가 나빠 장사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한 단어인 동사 '안되다'**를 쓴다. '되다'를 부사 '안'으로 단순히 부정하는 구성과 구별하여, '안 된다'를 '안된다'로 고친다. 문장에서는 '장사가 잘 안된다'로 쓴다.

NoteBase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探險의 險은 '험', 矛盾의 盾은 '순', 貨幣의 幣는 '폐'로 읽는다. 따라서 세 단어는 각각 **탐험·모순·화폐**로 읽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探(탐)·險(험), 矛(모)·盾(순), 貨(화)·幣(폐)이므로 '探險(탐험)·矛盾(모순)·貨幣(화폐)'는 세 단어의 독음이 모두 바르다.

② X: 詐欺는 '사기', 惹起는 '야기'로 읽는다. 그러나 灼은 '작', 熱은 '열'이므로 灼熱의 독음은 '치열'이 아니라 **'작열'**이다.

③ X: 破綻은 '파탄', 洞察은 '통찰'로 읽는다. 그러나 荊은 '형', 棘은 '극'이므로 荊棘의 독음은 '형자'가 아니라 **'형극'**이다.

④ X: 箴言은 '잠언', 奢侈는 '사치'로 읽는다. 그러나 惡寒에서 惡은 '오'로 읽으므로 惡寒의 독음은 '악한'이 아니라 **'오한'**이다.

NoteBase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ㅟ,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ㄴ, ㅁ, ㅇ'은 공기가 코로 빠져나가며 나는 **비음**이다.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 ㅁ,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어 발음하는 **비음**이다. 따라서 '유음'을 '비음'으로 고쳐야 한다. 유음은 혀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치거나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며 내는 소리로, 'ㄹ'이 이에 해당한다.

② O: 마찰음은 발음 기관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다. 'ㅅ, ㅆ, ㅎ'이 이에 해당한다.

③ O: 후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입안의 뒤쪽**에 놓이는 모음이다. 단모음 체계에서 'ㅡ, ㅓ, ㅏ'는 모두 후설 모음으로 분류된다.

④ O: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이다. 단모음 체계에서 'ㅟ, ㅚ, ㅗ, ㅜ'는 모두 원순 모음으로 분류된다.

NoteBase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라)－(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라)의 '그, 즉 혜시'는 (나)에서 소개한 **혜시를 가리킨다**. (라)가 삶과 죽음, 옳음과 그름의 상대적 관계를 설명한 뒤, (다)가 **'이런 상대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성인의 태도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나) → (라) → (다)

(가): '이쪽'과 '저쪽'에서 보는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사물도 **보는 쪽에 따라 '이것'과 '저것'이 된다**는 상대성을 제시한다. 다른 문단의 설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나): '그러므로'를 통해 (가)의 관점에 따른 상대성을 이어받아, 이것과 저것이 서로에게서 비롯된다는 관계를 이끌어 낸다. 이어 이 관계를 혜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로 소개한다. **'이것과 저것'은 (가)의 중심 소재**이므로 두 문단이 이어진다.

(라): **'그, 즉 혜시'는 (나)에서 소개한 인물**을 가리킨다. 혜시를 언급하면서 삶과 죽음, 된다와 안 된다, 옳다와 옳지 않다가 서로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논의가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삶과 죽음 및 시비의 관계로 확장된다.

(다): '그래서'에 이어 성인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대적인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대립 항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리킨다. 특히 (라)의 옳음과 옳지 않음에 관한 논의가 (다)의 '시비'로 이어지며, 상대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성인의 관점이 결론으로 제시된다.

NoteBase